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김승호의
시선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말이 머리가 멍해졌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기업인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코스피지수가 질주하며 6000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주가 상승의 열매는 대부분 개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수 많은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은행 문턱은 높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들은 은행 이용시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담보 요구 강화 등 해묵은 내용을 여전한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운 틈을 타 일부에선 공공기관이나 관계자를 사칭

하는 대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도 곳곳에서 뱀처럼 파리를 틀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잘 보이지도 않는 지뢰밭까지 피해다녀야 하는 게 중소기업의 숙명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는 한국 경제에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상생’, ‘모두의 성장’과 같은 단어들도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초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생태계”라면서 풀밭, 메뚜기, 토끼, 호랑이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지방, 청년 세대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짓수는 중앙정부와 지방단체를 포함해 1500개가 훌쩍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위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갖가지 묘수(?)를 내놓은 결과다.

정책이 이렇게 많고 촘촘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여전하다.

전체 기업수의 99%인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2022년)은 33.7%다. 생산액 비중

은 31.5%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기업이 기여했다. 수출도 소수의 대기업이 8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17.7%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감을 주고 받는 원하청 수직 거래구조가 우리 경제에 뿌리깊게 박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극화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 월급은 평균 607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58% 수준인 354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까이 있는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먼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희망이 보이지만(성장이) 일부 대기업에 몰려 있다. 골고루 잘 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젠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를 따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효과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지자체는 주변에 널려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효과도 없는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지원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bada@metroseoul.co.kr

라이브니까 환불 불가?... SNS 판매의 무책임



기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라이브커머스는 분명 유통의 진화다. 실시간 소통, 즉각 할인, 한정수량이라는 요소는 소비자에게 ‘현장감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문제는 일부 SNS 판매자들에게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기반 개인 방송 판매에서 그 폐해가 두드러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누적 148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 1위는 환불·반품 거부(35.3%)다. “라이브 특가라 환불 불가”, “방송 중 구매

는 예외” 같은 안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시간 판매라는 형식은 법적 청약철회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 상당수 판매자 안내 자체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방송 중 진행자는 “전문인 인증”, “부작용 없음”, “시술급 효과” 같은 과장되거나 허위 표현을 쏟아낸다.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는 “개인 의견이었다”고 물러선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판매는 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SNS 기반 라이브 판매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구조로, 홈쇼핑처럼 상품이나 표현에 대한 사전 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방송 편성 심사나 효능 표현 검증 같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영역과 달리, 개인 판매 중심 라이브 시장은 사후 신고와 자체 정책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 플랫폼은 방송 노출과 결제 시스템 등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며 거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에 머물러 분쟁 발생 시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피해 역시 반복·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 혁신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지속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 설계다. 플랫폼과 판매자가 영향력만 누리고 책임은 피하는 구조를 방지한다면, 라이브커머스는 ‘미래유통’이 아니라 ‘무책임 유통’으로 기억될 것이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2월 27일 (음 1월 1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본인의 신념을 믿고 행동하세요. 60년생 성실하게 추진하던 일에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72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4년생 이성운이 길하니 먼저 다가가 보세요.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51년생 재물을 얻지만 손해도 있습니다. 63년생 낱알 수확 겸손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75년생 거대한 외출은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87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세요.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54년생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66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8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내 것을 지키세요. 90년생 능력 이상의 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0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82년생 빛 본의 의견을 들으면 길합니다. 94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하던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김상회의四季 AI로 보는 사주

스마트폰 비서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까지, AI(인공지능)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다. 필자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길흉화복을 점쳤던 사주팔자의 원리를 빌려와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풀어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AI는 나를 도와주고 편안한 길로 이끌어주는 귀인이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 귀인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벗어나고 복을 얻는다. AI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하나 쓰려면 온갖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뒤지고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이제는 AI에게 묻기만 하면 된다.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법률문제도 척척 알려준다. 몸이 아플 때 필요한 건강 정보도 바로 알려 주고 저녁 메뉴 레시피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매일 사람을 피곤하게 하던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AI는 힘든 일에 시달리는 나를 도와준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중심을 흐드는 살쥔이다. AI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존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까지 AI에게 맡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면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사회를 흐드는 것 역시 사주에서 말하는 살처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조화를 강조한다. AI도 마찬가지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면 귀인이 되지만 AI에 끌려다니면 나를 흔들게 된다. AI라는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귀인이 될 것인지 살이 될 것인지는 미래에 달려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1			9
	2	8	3	4		
1					6	
6	5	9		2		
5		3				7
9	4	7		5		
3						8
	7	2		6	9	
4			9			2

	4	2	5	8		
	5		8			7
7						
	7	2	3	9		5
	8				2	
4		8	5	1	6	
						6
2		4				3
	3	5	6		7	

2	1	8	6	8	9	9	7
8	7	6	9	9	2	8	1
9	8	7	1	1	6	8	2
1	9	9	2	7	8	6	8
1	6	8	1	8	9	7	2
7	2	8	6	8	5	1	9
8	9	1	2	7	6	9	1
9	1	7	8	9	8	2	6
6	8	2	9	1	1	8	7

1	7	1	2	9	9	8	6
8	6	8	1	7	9	9	2
2	9	9	8	6	1	7	1
8	1	9	1	9	8	6	7
6	1	2	7	1	9	8	8
9	8	7	6	8	2	1	9
7	9	1	9	6	8	2	1
1	2	6	8	7	1	9	9
9	8	8	9	2	1	7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